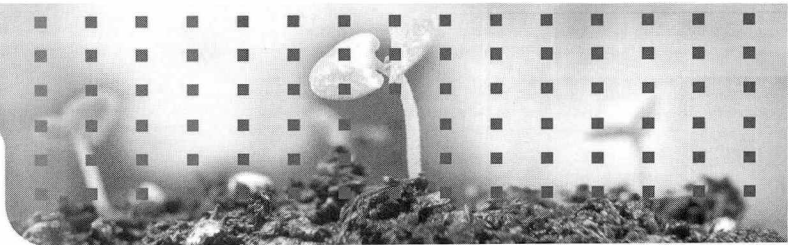


지자체소식



강원도, 쪽빛 동해바다 출입금지 풀려



푸른물 동해바다, 하얀백사장을 가로막았던 해안 철조망이 30여년만에 그 빗장을 풀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소장 전영만)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1980년부터 설치된 해안 철조망은 1996년 강릉 안인진리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주민생활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쳤으며,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나, 그동안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노력과 정부의 과감한 개선방침 결정(5.30 국무조정실 발표)으로 완전철거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동해안 6개시군의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주민생활밀집지역과 관광지 등 총 106개소 61.7km구간에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되며, 금년도에는 61억원을 투자하여 주요해수욕장 등 21.1km의 철책선을 완전 철거하게 된다.

이에따라, 강원도에서는 울여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들이 마음껏 자유로이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7월 6일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철조망을 완전히 철거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철거 대상 21.1km 중 절반가량을 철거하였으며,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번에 철거되는 지역에는 경계등 및 과학화 감시장비 등으로 대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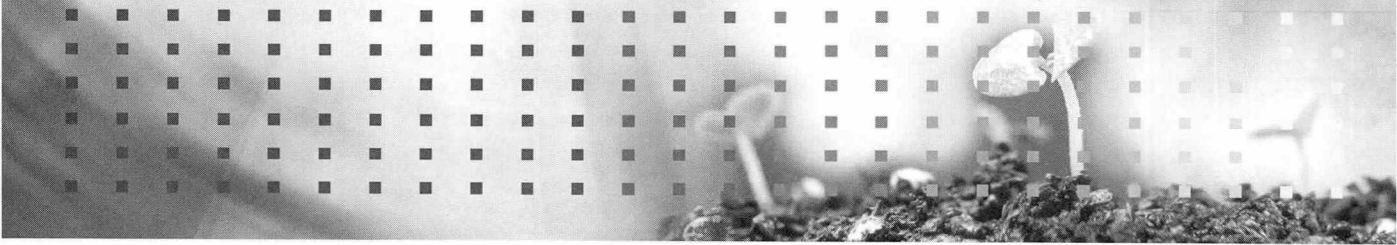
금번 철조망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합참)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단(T/F)을 구성하여 지난 3월에 동해안 현지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견 등을 수렴하고, 범정부 T/F회의 개최 등 발 빠른 행보 끝에 지난 5월 30일 국민 불편 해소라는 전향적 차원의 '군 경계 철책개선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금년여름 동해안 피서객은 철조망철거와 함께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상초유의 3천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면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동해안의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동해안 개발의 민자유치사업도 탄력을 받는 등 명실공히 환동해권 중심 신해양관광시대가 펼쳐질 것 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해수욕장 및 어촌마을 활성화 등 해양관광지의 계절성 한계를 극복하기위하여 동해안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 등의 개발에도 진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양평 세미원 세계적 환경공간으로 육성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양평군 연꽃단지를 세계적 친환경 명소로 조성해나갈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7월 1일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일원에 조성중인 친환경 음악교육장, 세미원 확대조성 사업 부지를 돌아보고, 도차원에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음악교육장이 마련될 소규모 연꽃저수지를 돌아보고, 연주단을 태운 배를 띄워 보는 이로 하여금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하겠다는 조성계획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들며 찬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양평 연꽃단지엔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친환경 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환경을 제대로 가꿔나갈 수 있도록 도입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라”고 도 농정국장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이곳 연꽃단지엔 강, 연못, 형형색색의 연꽃, 수생동식물 등 없는데 없다”며 “아이들이 자연환경에서 보고 배워야 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만큼 빠른 조성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농업과 임업 관련직의 공무원들은 이런 곳을 꼭 돌아보고, 어떻게 경기도가 국민들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연꽃을 소재로 한 연꽃잎 국수, 영양밥, 냉면 등을 시식하고, 경기미 떡산업과 함께 연꽃음식을 경기도 대표 특화음식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남도, '2008 람사총회 준비 민간추진위원회' 발대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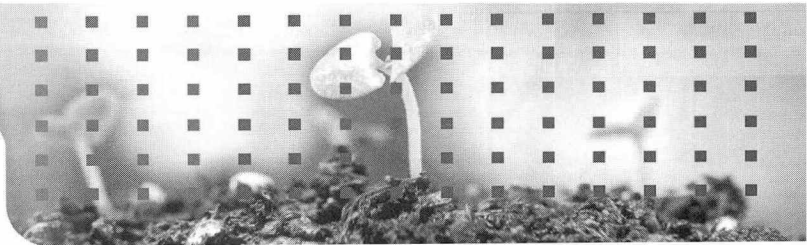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2008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도민 및 국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손님맞이 등 민간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대하여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8 람사총회 준비 민간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지난 6월 28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과 민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판도 경상남도의회 의장, 조무제 경상대학교 총장, 이순복 경남신문사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단체, 학계, 언론계, 기업체, NGO 등 각계 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 고문과 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 람사총회 준비 민간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이인식 민간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의 추진경과보고와 민간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추대하고, 2008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람사총회 준비에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였다.

김태호 경상남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다자간 환경협약인 2008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환경경남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지 자 체 소 식



있도록 민간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각 기관·단체별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 발대식을 계기로 민간추진위원회는 총괄준비, 홍보, 행사지원, 부대행사, 국제협력, 습지사업 등 6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경상남도의 랍사총회 개최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및 국민의 환경 및 습지보전 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과 랍사총회 개최 지역의 위상에 걸맞게 친절, 질서, 청결 등 수준 높은 도민의식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랍사총회 참가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 교통, 관광, 환경정비 등 손님맞이 운동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민간추진위원회는 기관·단체별로 활동계획을 수립, 자율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지원체계 협력을 위한 정기협의회를 매 분기마다 개최하여 각급 기관·단체간 협력·협조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상북도지사, 스페인 아시오나사와 MOU 체결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유럽을 방문했던 경상북

도는 지난 11일 스페인 북부지역 팜플로나 소재한 세계 굴지의 풍력전문기업인 아시오나(Acciona)를 방문하고 경북 영덕군 일원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및 풍력관련 에너지 파크를 건설하는 MOU 체결식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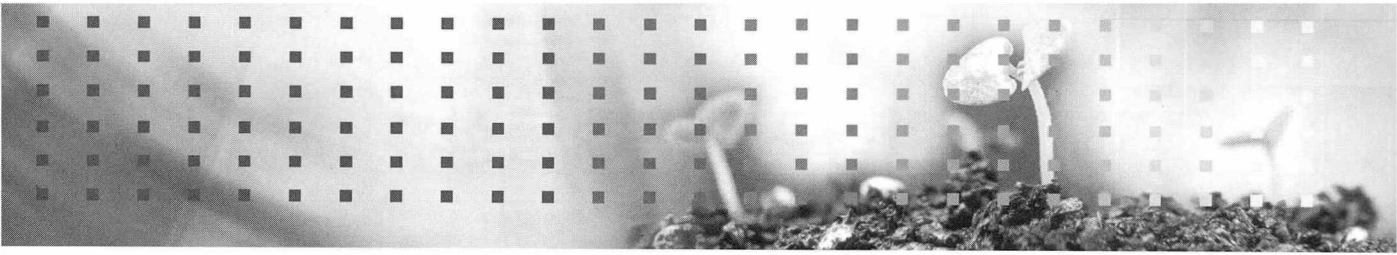
이번 체결식에는 김관용 지사를 비롯한 권영택 영양군수와 Acciona사의 Femin Gembero 사장, Acciona Korea 김성빈 사장이 참석하여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스페인 팜플로나에 본사를 두고있는 아시오나는 세계적으로도 110개 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여 2,636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세계4위 풍력회사로서 앞으로 영양군 석보면 일원에 2008년 상반기까지 1단계로 1.5MW급 풍력 발전기 43기를 설치(64.5MW)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풍력단지를 확대하여 영양군 일원에 150MW까지 시설을 늘여갈 전망이다.

광주시, 중외공원 생태숲길 조성 완료



광주시건설관리본부에 따르면 총사업비 4억1천만 원을 투입, 작년 12월 착공한 중외공원내 생태숲길



조성사업을 지난 26일 완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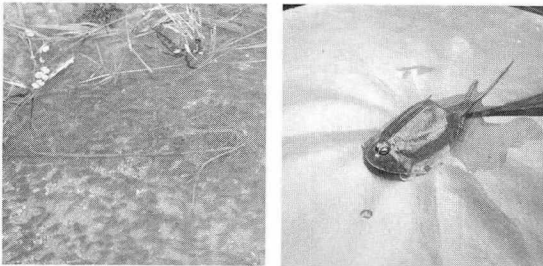
우선, 그동안 훼손이 심각했던 기존 산책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목재보행데크를 설치하고 숲길 생태를 복원하여 보행에 만족감을 주고 있다.

또, 숲길 주변에 참나무, 산철쭉, 수수꽃다리, 산수국등 수목 6종 2천여주와 맥문동, 비비추, 상사화 등 초화류 3종 4천여주를 식재하는 등 산책로 곳곳을 미니정원으로 조성했다.

이와함께 숲속에서 생태환경을 관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곳곳에 평의자와 피크닉탁자 21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목재데크 구간에 190여개의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하여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市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훼손되었던 숲길이 건강하게 복원되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공원을 고르게 조성하고, 기존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멸종위기동물 ‘긴꼬리투구새우’ 집단서식 확인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Ⅱ급으로 지정된 긴꼬리투구새우가 동구 공산친환경농업지구 구

암마을의 무농약벼재배단지에서도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긴꼬리투구새우가 서식중인 동구 공산동 구암마을은 2001년부터 농업기술센터와 공산농협의 지원으로 친환경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쌀 생산을 인증받기 시작하였다.

올해에는 49농가 18ha에서 무농약인증 쌀을 생산할 계획이며, 2006년에는 대도시지역으로는 흔치않게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긴꼬리투구새우가 발견된 바 있다.

긴꼬리투구새우가 다시 서식하는 것은 과거 농약과 비료에 의존하던 관행농법에 의해 황폐화된 농업환경과 생태계 다양성이 친환경농업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도시근교의 농업지역에서의 친환경농법이 큰 의미를 지님을 나타내기도 한다.

도시 근교의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친환경농업지구인 공산동 구암마을은 농협에서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된 아름답고 청정한 농촌마을로 해마다 많은 국내외의 농촌체험관광객이 찾고 있다.

긴꼬리투구새우가 헤엄치고 있는 논을 체험관광 온 어린이들에게도 직접 보여줌으로써 청정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친환경농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긴꼬리투구새우의 집단서식 확인을 계기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농업인들과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긴꼬리투구새우 외에도 농업생태계를 살리는 생물종을 발견·보호하며, 친환경농업기술을 확대·전파하는데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다. (3)